



연중 제5주일

———— 2025. 2. 9(다해) | 제2138호 ————

수원
주보

"그들은 배를 저어다 물에 대어 놓은 다음,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
(루카 5,11)



음성지원QR

【입당송】 시편 95(94)6-7 참조

어서 와 하느님께 경배드리세. 우리를 내신 주님 앞에 무릎 꿇으세. 그분은 우리의 하느님이시네.

【제1독서】 이사 6,1-2 7,3-8

【화답송】 시편 138(137),1과 2 2,2 7과 3,4-5,7 8-8(◎ 1 ㄷ)

◎ 주님, 천사들 앞에서 찬미 노래 부르나이다.

○ 주님, 제 마음 다하여 당신을 찬송하나이다. 제 입의 말씀을 들어 주시기에, 천사들 앞에서 찬미 노래 부르나이다. 거룩한 성전 앞에 엎드리나이다. ◎

○ 당신은 자애롭고 진실하시니, 당신 이름 찬송하나이다. 제가 부르짖던 날, 당신이 응답하시고, 저를 당당하게 세우시니, 제 영혼에 힘이 솟았나이다. ◎

○ 주님, 세상 임금들이 당신 말씀 들을 때, 저들이 모두 당신을 찬송하게 하소서. 주님 영광 크시오니, 주님의 길을 노래하게 하소서. ◎

○ 주님은 오른손으로 저를 구하시나이다.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리라! 주님, 당신 자애는 영원하시옵니다. 당신 손수 빛으신 것들 저버리지 마소서. ◎

【제2독서】 1코린 15,1-11(또는 15,3-8,11)

【복음 환호송】 마태 4,19 참조

◎ 알렐루야.

○ 주님이 말씀하신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들리라. ◎

【복 음】 루카 5,1-11

【영성체송】 시편 107(106),8-9

주님께 감사하여라, 그 자애를, 사람들에게 베푸신 그 기적을. 그분은 목마른 이에게 물을 주시고, 굶주린 이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네.

1면 사진가회 권영화(아네스) 작

윤호요셉 신부의 전례 키워드

" 경외심, 성찰, 사명 "

제1독서에서 이사야는 하느님의 거룩하심을 느끼며 경외심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불순함을 깨닫습니다. 하지만 하느님께서는 그의 불순함을 없애주시고 사명을 부여해 주십니다. 복음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자신의 배에 모십니다. 말씀이 끝난 예수님께서는 "깊은 데로 가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것은 단순히 물고기를 잡기 위한 말씀이 아니라 우리 내면의 깊은 곳을 성찰하라는 의미입니다. 자신의 내면을 성찰한 베드로는 답을 얻었고, 자신 앞에 계신 예수님께 대한 경외심에 가득 찼습니다. 그런 그를 예수님께서는 받아주시며 죄를 없애주시고 사명을 부여하십니다.

"사람 낚는 어부가 되어라."

제2독서의 바오로는 어떤 사도들보다 복음 선포에 열성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함께 하시는 하느님의 은총이 하신 일이다." 하느님을 경외하고 내적 성찰이 이루어진 이들은 하느님의 사명에 따라 파견된 삶을 살게 됩니다. 그것은 나를 드러내는 삶이 아니라 자신을 감추고 낮추는 삶입니다.

글 | 조윤호 윤호요셉 신부(봉담 본당 주임)

“두려워하지 마라.

이제부터 너는 사람을 낚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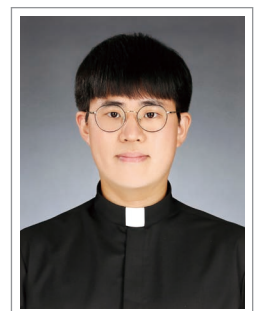
오늘 복음에서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일으키시는 기적을 체험합니다. 이미 방새도록 고기를 잡기 위해 애썼지만 아무런 수확이 없었던 베드로의 입장에서 “깊은 데로 나가 고기를 잡아라.” 하는 예수님의 말씀은 허무맹랑한 이야기로 들렸을 수도 있습니다. 한평생을 호수에서 살아오며 언제, 어느 곳에서 고기가 많이 잡히는지 속속들이 알고 있었던 그였기에,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자신의 경험에 비추어 무시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다시 한번 고기를 잡으러 나섰고, 그물 가득히 걸린 물고기를 통해 예수님이 보통 분이 아님을 직감합니다. 이후 베드로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에서 베드로가 자신의 체험을 하느님과 연결 지었음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른 베드로가 이어서 꺼낸 말은 찬미나 감사가 아니었습니다. “주님, 저에게서 떠나 주십시오. 저는 죄 많은 사람입니다.”라고 말한 것처럼, 베드로가 예수님께 느꼈던 지배적인 감정은 ‘두려움’이었습니다. 왜 베드로는 예수님을 통해 하느님 체험을 하였음에도 이와 같은 반응을 보인 것일까요? 사실 두려움은 하느님을 체험한 성경 속 많은 이가 느꼈던 감정이기도 합니다. 하느님의 말씀을 받았던 수많은 예언자가 그러하였고, 물 위를 걸으시던 예수님을 보고 제자들이 느꼈던 감정 또한 두려움이었습니다. 그것은 하느님께 대한 불신이라기보다는 ‘내가 잘할 수 있을까?’, ‘더 나은 책임자가 있지 않을까?’ 같은 자신감의 결여와 당혹감이 담긴 감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그것이 제 성소의 여정이기도 하였습니다.

기도 중에 하느님으로 말미암아 기쁘고 가슴이 벅찼음에도, 수없이 제 마음은 ‘나처럼 부족한 사람이 사제가 되는 것이 맞을까?’, ‘주님께서는 내가 사제가 되는 것보다는 다른 길을 걸길 원하시는 것이 아닐까?’라는 고민을 하였습니다. 그 모든 고민이 의미 없는 것은 아니었지만, 그것이 제가 주님 앞에 서서 느꼈던 두려움이었고, 사제의 길을 걸기로 결심하기 위해 극복해야만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복음에서 베드로가 두려움에 머물러 있기를 원하지 않으셨듯이, 저 또한 그러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이제부터 너는 사람을 낚을 것이다.” 하신 예수님의 말씀은 ‘내가 할 수 있는지 없는지’, ‘나에게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따지지 않습니다. 그 일을 시키시는 분인 예수님을 바라보게 만듭니다. 중요한 것은 나를 불러주신 주님의 말씀을 따를 마음이 진정으로 있는가이지, 그 이외의 것들은 사실 주님께서 하시는 일 테니 말입니다. 아직 부족함이 많은 저이기에 때론 고민하기도, 두렵기도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당차게 그분을 따라나섰던 베드로처럼 또 다시 주님을 따라나설 용기를 주님께 청해봅니다.



글 | 서형주 루카 신부
(과천 본당 보좌)

교황 클레멘스 6세와 우르바노 6세의 희년

글 | 황치헌 요셉 신부(수원가톨릭대학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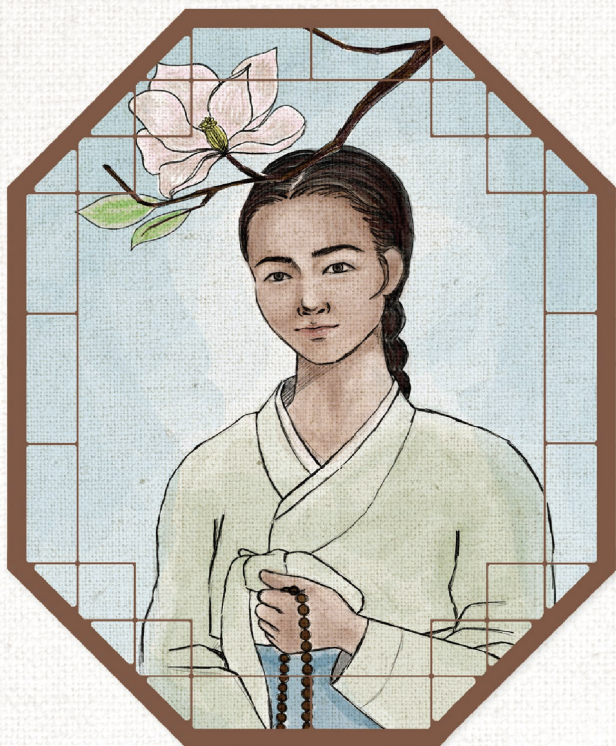
아비뇽 유배 시대의 교황 클레멘스 6세(1342~1352년)는 1343년 1월 27일, 희년 주기를 100년에서 50년으로 단축하고, 1350년에 두 번째 희년을 기념한다는 칙서 「Unigenitus Dei Filius」를 반포했습니다. 이는 로마 사절단의 요청에 따른 것으로, 로마는 1309년 클레멘스 5세가 교황청을 아비뇽으로 옮긴 이후 혼란과 빈곤 속에 방치되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로마 주교들은 교황에게 로마로 돌아올 것을 계속 요청했고, 아울러 방치된 로마시를 위해 희년을 1400년이 아니라 1350년으로 앞당길 것을 청원했던 것입니다. 이에 클레멘스 6세는 로마로 돌아가는 대신 희년 선포를 통해 로마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칙서 「Unigenitus Dei Filius」은 ‘대사(大赦)’의 초기 역사에 가장 중요한 문헌으로, 대사의 교리적 기초를 명확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대사의 기초가 되는 보화의 주된 원천은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며 인류를 구속하신 그리스도의 공로와 성모 마리아 및 성인들의 공로이며, 이 보화는 베드로와 그의 대리자가 대사의 형태로 신자들에게 나누어주는 것입니다. 특히 베드로와 바오로 사도를 공경하며 그들의 보호를 청하기 위해 성 베드로 대성전과 성 바오로 대성전, 성 요한 라테라노 대성전 방문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 칙서에는 대사를 “죄에 마땅한 잠벌에 대한 용서”로 정의하면서도, “모든 죄에 대한 용서”로도 표현하며, 대사 교리 발전의 중대한 단계를 보여줍니다.

또한, 칙서는 희년 주기를 50년으로 줄인 근거를 인간

의 짧은 수명과 성경에서 찾고 있습니다. 레위기(25,11)에 따르면 주님께서는 50년째 되는 해를 사면과 기쁨의 희년으로 삼으라고 명하셨으며, ‘50’이라는 숫자가 구약과 신약에서 특별히 존중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클레멘스 6세는 1348년 흑사병 대유행의 위험에도 희년을 연기하거나 취소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는 순례자들 사이에서 감염이 확산되고, 귀로 중 전염병이 퍼졌다는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한편, 교황좌를 로마로 되돌린 교황 그레고리오 11세의 후임자이며, 그의 재임기에 서구 대이교가 시작된 교황 우르바노 6세(1378~1389년)는 1389년 4월 8일 교서 「Salvator noster Unigenitus Dei Filius」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서 33년간 살았던 것을 근거로, 1390년을 첫 번째 희년으로 기념하고 이후 희년 주기를 33년으로 정했습니다. 교황은 또한 사람들의 수명이 예전보다 점차 짧아지고 있음을 고려하며, 많은 이가 50년 주기의 희년을 맞을 수 없다는 점에서 사람들이 더욱 희년의 은총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본래 1400년에 거행되어야 했던 희년이 1390년으로 앞당겨졌습니다. 또한, 성 베드로 대성전과 성 바오로 대성전, 성 요한 라테라노 대성전 외에 성모 대성전(산타 마리아 마조레 대성전)을 방문 성지로 추가했습니다. 그러나 우르바노 6세가 1389년 10월 15일 서거하면서, 그의 후임자인 보니파시오 9세(1389~1404년)가 1390년 희년을 기념했습니다.



목에 칼을 받고 어린양처럼 순교한 이영희 막달레나 (축일 9월 20일)

글 | 백형찬 라이문도(전 서울예술대 교수)

이영희(1808~1839)는 시흥의 한 가난한 양반집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머니와 언니 그리고 고모는 열심한 신자(후에 이들은 모두 순교하여 성녀가 됨)였으나 아버지는 비신자로 천주교를 싫어했습니다. 아버지는 딸을 혼인시키려 했으나 딸은 동정녀가 되길 원했습니다. 이영희는 아버지가 승낙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해 집을 나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교우인 하녀에게 결심을 밝히며 “서울까지는 30리다. 나는 서울 가는 길을 잘 모른다. 아버지가 내일 서울에 가니 네가 그 뒤를 따라가며 자취를 남겨라. 나는 자취를 보고 따라가겠다.”라고 말했습니다. 밤이 되자 이영희는 흰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그리고 입었던 옷을 가지고 집을 빠져나와 숲으로 들어가 몸에 상처를 내고 입었던 옷에 흘린 피를 묻혔습니다. 그

옷을 찢어 흠어 놓고는 날이 새기를 기다렸습니다. 아버지는 새벽이 되자 서울로 떠났습니다. 하녀는 따라가며 자취를 남겼습니다. 이영희는 그 자취를 따라 서울로 올라와 고모집을 찾아갔습니다. 고모는 조카의 모습을 보고 놀랐습니다. 자초지종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고모집에 도착했고 이영희는 숨었습니다. 집에서는 난리가 났습니다. 어머니는 딸을 찾을 수가 없자 애가 탔습니다. 삼촌이 소식을 듣고 와 숲에 가 보니 피 묻은 옷이 있었습니다. 삼촌은 서둘러 고모집으로 가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큰일났습니다. 영희가 범에게 잡혀갔습니다.” 아버지는 기절했습니다. 얼마 후 정신을 차린 아버지는 사냥꾼을 풀어 숲을 뒤졌으나, 딸을 찾지 못했습니다. 어머니는 딸이 고모집에 무사히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내가 슬퍼하지 않는 것을 보고 이상하게 여긴 아버지는 딸 소식을 사실대로 말해달라며 딸이 살아있다면 소원을 다 들어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어머니는 사실대로 말했습니다. 안도한 아버지는 고모집에 올라와 딸에게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했습니다.

이영희는 고모를 비롯해 여 교우들과 박해, 순교, 천국에 대해 진지하게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러자 ‘거룩한 열정’이 솟아올랐습니다. 그래서 포도청을 찾아가 “나는 천주교인이요, 체포하십시오.”라고 말했습니다. 포졸이 이를 믿지 않자 목주를 보여주었습니다. 포졸은 이영희를 옥에 가두었습니다. 문초가 시작되었습니다. 천주교를 배교하라고 했으나 천주를 절대 배반하지 않겠다고 하자 몽둥이로 다리를 수없이 내려쳤습니다. 형조로 이송되어 문초를 받았습니다. 혹독한 고문이 가해졌고 사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이영희는 서소문 밖 형장으로 끌려가 어린양처럼 목에 칼을 받고 순교했습니다.

“순교자 옥에 갇혀도 양심은 자유로웠네
유린도 진린 위하여 주님께 생명 바치신!”

(가톨릭 성가 286번 ‘순교자의 믿음’)



2025 동고동락(동GO동樂)

- | 활동 | 꽃미지역아동센터 어린이들과 함께 하는 교류 및 멘토링 활동
연 6회 정기 야외 체험 활동(사전교육 및 평가회 별도)
- | 모집 | 15명 내외
- | 대상 | 교구 내 청소년(2002.1.1.~2010.12.31. 출생자)
- | 신청 | 3월 11일(화)까지
- | 참조 | www.csdyn.or.kr
- | 문의 | 031) 360-7921~3 (재)대건청소년회

2025 수원교구 주일학교 부모교육

- | 소개 | 청소년이 교회를 떠나는 현실 속에서, 주일학교 중심의 사목이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수원교구 청소년국은 부모교육을 실시하여 가정 내 신앙교육을 강화하고, 청소년 사목의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 | 장소 | 상현동 성당
- | 인원 | 선착순 200명
- | 비용 | 각 차수당 5,000원
- | 참고 | (자녀 돌봄 서비스)신청서에 교육에 동반하는 자녀를 등록해주세요.
- | 일정 | 20시~22시(2시간)



신청서 안내

2025년 수원교구 주일학교 부모교육 주제 및 강사			
일시	주제	강사	비고
3/12 (수)	우리 아이도 신앙을 가지면 좋겠다	조재연 신부	햇살 사목 센터 연구소장
3/19 (수)	삼위 일체 사랑을 통한 참된 부모 되기	최지원 수녀	영원한 도움의 성모수도회
3/26 (수)	하느님 사랑의 전달자인 부모	최지원 수녀	영원한 도움의 성모수도회
4/2 (수)	나는 누구인가? 내 자녀는 누구인가? - 아버지와 나	김미라	한국 로고테라피 연구소장

- | 문의 | 031) 8019-5398 제1대리구 청소년2국

첫영성체_주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난 우리 가족

글 | 윤형준 아브라함(청계 본당)



코로나19가 한창이던 2021년과 2022년, 힘든 상황에도 첫째에 이어 다음해에 둘째까지 첫영성체를 무사히 마치면서 우리 가족은 진정한 예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첫째는 이제 어엿한 복사단의 언니로 동생과 후배들을 잘 이끌면서 성당 안에서 더 큰 활동으로 그리스도인의 임무를 하나씩 배우고 있습니다. 혜정(엔다)아, 혜림(마리나)아~ 아빠 엄마랑 앞으로도 꾸준히 열심히 신앙생활하자. 사랑해!!



참여하기

함께하기

초성 퀴즈

2월 22일, ‘**ㅅ ㅂ ㄷ ㄹ ㅅ ㄷ ㅈ**’ 축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드로 사도를 선택하시어
당신의 지상 대리자로 삼으신 것을 기념하는 날이다.



※ ‘7면 함께하기’에 응모하면 추첨을 통해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 정답과 당첨자는 2월 16일자 주보 10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금주에 기억할 사제



이종철(스테파노) 신부
2005년 2월 13일 선종

교구알림

교정사목위원회 월례 기도모임

일시 2.19(수) 10:30~16:00
장소 교정사목위원회 밝음터
(수원시 영통구 매영로 159번길 38)
대상 참여를 희망하는 분
준비 묵주, 미사도구
참고 점심 식사 개별
문의 031) 446-7909
사회복음화국 교정사목위원회

수원교구 복음화국 신앙강좌 1차

일시 2.22(토) 10:00~12:00
장소 분당성요한 성당
주제 회년: 예수그리스도의 기쁨 되기
강사 나형성 신부
대상 분당 소공동체 봉사자
각 분과 봉사자, 모든 신자
준비 개인컵(텀블러)
방법 공문 참조
문의 031) 360-7631
교구 복음화국 신앙강좌 담당

수원화성순교 성지 3월 순교영성 피정

일시 3.7(금) 14:00~17:00
장소 수원화성순교 성지(복수동 성당)
4층 대강당
강사 최민호 신부
찬양 도미노 찬양선교단
미사 최진혁 신부
문의 031) 246-8844~5 수원화성순교 성지

수원교구 사이버성경학교 2025년 강좌

대상 성경 공부를 원하는 이
과정 첫걸음, 일반 과정 5만 원
(한 과목 수료 시 2만5천 포인트 지급)
단과, 키워드로 읽는 성경 1만5천 원
신설 키워드로 읽는 성경-창세기
(정남진 신부)
성경 통독(무료) 365일 신청 가능
참고 인터넷 검색창 "사이버성경학교"
<https://cyberbible.casuwon.or.kr>
문의 031) 360-7635, 010) 7470-7966

2025년 순교영성강학 I

일시 3.4~6.17 매주 화요일 13:30~16:30
장소 수원교구청 지하 강의실
주제 테마가 있는 한국천주교회사
회비 7만 원
계좌 신한 131-016-639497 천주교수원교구
문의 031) 548-1211 시복시성추진위원회

젊은이 기도모임

‘열린 찬양 미사’, ‘열린 찬양 기도회’
열린 찬양 미사
일시 3.15(토) 16:00~18:00
열린 찬양 기도회
일시 매주 화요일(공휴일 제외) 20:00~22:00
장소 제2대리구청
대상 세례받은 청년
기타 카카오톡 채널, 인스타그램, 다음카페
'수원교구 젊은이 기도모임' 검색
문의 031) 360-7636 제2대리구 청소년3국

홍주, 원머리 성지순례

일정 3.19(수) 08:00~19:00
출발 수원화성순교 성지
인원 선착순 40명
회비 3만5천 원(점심, 간식 포함)
주관 수원화성순교 성지
마감 2.28(금)
참고 1일 여행자보험 개별 가입
실비보험 가입자 제외
문의 031) 246-8845 수원화성순교 성지

제11기 대건청소년해외봉사단 참가자

일시 7.24(목)~8.2(토) 8박 10일 예정
장소 라오스 폰홍 지역
대상 교구 내 청소년
(2002.1.1~2009.12.31 출생자)
내용 노력봉사(학교시설 개·보수 활동)
교육봉사, 문화체육 교류활동 등
인원 15명 내외
마감 2.25(화)
참조 www.csdj.or.kr
문의 031) 360-7922 (재)대건청소년회

양지 영성교육원

장소 양지 영성교육원
예수마음기도
강사 권민자 수녀
일시 2.14~16, 3.1~3, 5.23~25
시작 17:00~마침 15:00. 2박 3일
비용 20만 원
효소절식
내용 몸과 마음을 비우고 새롭게 채우는 시간
일시 2.21~23, 4.1~5, 5.23~25
비용 효소값 포함
2박 3일 27만 원, 4박 5일 40만 원
문의 031) 321-9054, 9060

중국어 미사

일시 매월 둘째 주일 16:00
장소 제2대리구청 2층 성당
대상 중국어 미사에 관심있는 교우 및 중국인
참고 현재 중국인 건진 교리 진행 중
중국인 예비신자 교리 희망자 상시 모집
문의 031) 268-2210, 010) 8376-7031
직암선교후원회

양알고해소

복수동 성당
일시 매주 수요일 14:00~17:00
문의 031) 246-8844~5

성남동 성당
일시 매주 화요일 14:00~16:00
문의 031) 754-0409

중앙 성당
일시 매주 수요일 14:00~17:00
문의 031) 441-3531

평택 성당
일시 매주 목요일 14:00~17:00
문의 031) 654-2702



미사·피정



성 도미니코 선교 수녀회 피정

일시 3.14(금)~22(토), 4.4(금)~12(토)
내용 성경 완독
문의 010) 3340-0201
형성 도미니코 피정의 집

ICPE Jesus시그널 피정 6차

일시 3.14(금)~16(주일)
장소 곧벤뚜알 피정의 집
대상 가톨릭 미혼 청년 만35~45세
문의 010) 5320-0419 ICPE카톡 플친



교육·모집



2025학년도 가톨릭교리신학원 신입생 추가

내용 성경과 교리 등
가톨릭 신학의 체계적 교육
대상 세례 3년 이상, 고졸 이상
만 75세 미만, 2년
선교사(교리교사) 자격증 수여
과목 교리학과(10:50~15:40, 주5일)
종교학과(19:00~21:35, 주4일)
마감 2.12(수)
문의 ci.catholic.ac.kr

예수회센터 봄학기 비대면 강좌

일시 3월 개강
영성과 철학상담
-아픈 영혼을 '철학' 으로 치유하기
일시 매주 화요일 19:00~21:00. 12주 과정
하늘씨앗 깨어나기(영성수련)
일시 화요일, 목요일, 금요일
19:30~10:00 13주 과정
금요일은 20~30대 청년 대상
방법 비대면 실시간 동영상 강좌
문의 center.jesuit.kr

여성연합회 제3회 교구 여성의 날

일시 3.20(목) 10:00~16:00
장소 정자동 주교좌성당
대상 누구나
주제 현장에서 만난 하느님
강사 한비아(국제구호 전문가)
미사 최덕기 주교(15:00)
회비 1만 원
계좌 신한 131-022-037976 여성연합회
문의 031) 242-1379 수원교구 여성연합회

성물, 수제묵주 조각 교육

신청 cafe.naver.com/cmc04
문의 010) 5234-5044
가톨릭목공예

2025년도 상반기

(재)안중근 바보장학회 장학생 선발

마감 2.14(금)
대상 국내 대학 재학 중인 학생 중
경제적 이유로 수학이 곤란한 자
참고 장학회 홈페이지
http://ahnbabo.co.kr '공지사항'
문의 031) 766-0815
(재)안중근 바보장학회 사무국

지속적인 성체조배회

성체신심미사 및 월례회의

일시 2.18(화) 14:00~16:00
장소 수원교구청 2층 대강의실
미사 이견희 신부(성시간)
대상 모든 신자
문의 010) 5223-4840
수원교구 지속적인 성체조배회

2025년 가톨릭교리신학원

통신(우편) 신학과정 추가

대상 수도자 및 평신도(만 18세 이상)
내용 가톨릭 신학 전반 26과목
마감 2.28(금)까지 원서 접수
참고 http://ci.catholic.ac.kr
문의 02) 745-8339

사진교실 제22기 초급반

일시 3.4~5.27 매주 화요일 10:00~12:00
장소 수원교구청 지하 회의실 1
개강 3.4(화) 10:00
대상 사진을 배우고 싶고
디지털 카메라를 소지하신 분
문의 010) 5262-9542 수원교구 사진가회

지속적인 성체조배회 영성학교

일시 3.5(수)~26 매주 수요일 13:30~16:00
장소 수원교구청 지하 강의실
강사 3.5, 12 김창기 신부
(묵상기도, 양심성찰)

3.19 이견희 신부(렉시오디비나)

3.26 김만희 신부

(하느님의 자녀가 되기를, 파견미사)

회비 3만 원

문의 010) 5223-4840

수원교구 지속적인 성체조배회

예수수도회 영성센터(서울) 프로그램

장소 1,7호선 운수역 10분 거리
사순 1일 피정
일시 3.6(목), 3.7(금), 3.13(목), 3.14(금)
영신수련 8일 피정
일시 3.18(화)~27(목)
문의 010) 6890-7223 예수수도회

미사 반주 봉사자를 위한 오르간 상설 교육

일시 2.25~4.24
대상 본당 반주 봉사자 또는 예비 반주자
신청 010-2751-4997(문자 신청)
비용 34만 원
계좌 신한 131-020-593137 천주교수원교구
참고 www.casuwon.or.kr '행사·모집'
문의 010) 2751-4997
수원가톨릭오르가니스트연합회

가톨릭전례꽃꽂이반 수강생

일시 3.6부터 매주 목요일
장소 각 대리구별 지정 성당
과정 소화 초급과정~영성사범1급 과정
참고 cafe.naver.com/floralliturgy
마감 2.17(월)
문의 010) 6278-2488, 010) 3848-6838
수원교구 전례꽃꽂이연구회

예수회 수도생활 체험학교

-나이 들, 새로운 소명

일정 3.17~26, 4.21~30
5.12~21, 6.9~18
장소 강원도 홍천
내용 지나온 삶을 성찰, 노년을 의미 있고
충만하게 살려는 프로그램
대상 60세 이상
비용 10일, 100만 원
문의 010) 7451-9707 예수회

수원가톨릭청년합창단 신입 단원

연습 매주일 13:30~16:00
장소 정자동 주교좌성당 4층
대상 37세 이하 세례자·예비신자 남녀
전공 무관
참고 카카오플러스친구, 카카오톡채팅
'수원가톨릭청년합창단'
문의 010) 3214-0797
수원가톨릭청년합창단



기 타



산티아고 순례길 42일

일시 3.30(주일)
내용 루르드, 파티마 순례 포함
산티아고 도보 순례 800km
비용 599만 원(+2100유로)
참고 catravel.co.kr
문의 070) 4086-0207 가톨릭드래블

마리아의 종 영성 심리 상담소

내용 개인 및 집단상담, 신앙상담, 심리검사
문의 010) 9505-8221
마리아의 종 영성 심리 상담소

기쁜순례 해외 성지순례

스리랑카 8일

일시 3.3, 7.7

조지아 9일

일시 4.7, 11.10

그리스, 튀르키예 12일

일시 9.14, 10.13

문의 010) 2303-4174 기쁜순례 여행사

국내·외 성지순례

일시 3.17 10박 12일. 성모님 발현지. 스페인
프랑스, 포르투갈

7.30 5박 7일. 이탈리아 순례

문의 031) 706-9175

비안네성지순례

국내·외 성지순례

일시 3.22(토)~23(주일) 대구교구 2차 ;

계산 성당, 관덕정

복자, 비산, 세방골

성모당, 성직자 묘지

3.29(토)~31(월) 제주교구 추자도 외 6곳

5.7(수)~18(주일) 성모발현지 12일

루르드, 파티마, 바뇌

문의 010) 9200-3532 바오로 성지순례

성심여행사 해외성지순례

베트남 라방, 짜끼우

성모발현 성지순례 5일

일시 3.31(대한항공)

일본 나가사키 성지순례 4일

일시 5.26(아시아나)

문의 010) 5909-5997 성심여행사



본당 직원

참고 www.casuwon.or.kr '채용·공모'

분당성요한 본당 미화원 / 2.10(월)까지

봉사자

참고 www.casuwon.or.kr '채용·공모'

관악 본당 반주자 / 채용 시

동탄반송동 본당 지휘자 / 채용 시

동판교 본당 반주자 / 채용 시

분당성마태오 본당 솔리스트 / 채용 시

안중 본당 지휘자 / 채용 시

평택 본당 반주자 / 채용 시

풍산 본당 지휘자 / 채용 시

치유의 집(한센인생활시설) 간호(조무)사

대상 간호(조무)사

조건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한센인 시설 근무 경험자 우대

응급실 또는 병동 근무 경험자 우대

마감 채용 시

참고 www.casuwon.or.kr '채용·공모'

문의 031) 451-2214

성 라자로 마을 치유의 집

동아시아복음화연구원 봉사자

내용 문서·한글, 워드, 디자인, 편집

교정 등 출판

회원·후원 안내 상담 및 교육 피정 연락

(엑셀, 파워포인트, 포토샵 가능자 환영)

홍보·인터넷, 디지털, 웹디자인, SNS 등

외국어·영어, 중국어, 일본어, 태국어 등

아시아 지역의 언어

학술·선교학, 신학, 철학, 종교학, 역사학

인류학, 등 석/박사 학위소유자

문의 031) 268-2210, 010) 8376-7031

동아시아복음화연구원

성 라자로 마을 직원

대상 사무직원

조건 사무, 전산업무(MS 오피스 가능자)

마감 채용 시

참고 www.casuwon.or.kr '채용·공모'

문의 031) 452-5655 성 라자로 마을

성소모임

한국순교복자발마수녀회

일시 전화 상담 후 결정

대상 만 45세 이하 미혼 여성

참고 상시 상담가능

문의 010) 9199-4995

한국순교복자발마수녀회

<수원주보 7면 정답>

< 1월 26일 자 >



< 2월 2일 자 >



▲ 당첨자 확인



▲ 그림파일 다운로드

※ 원본파일을 다운로드해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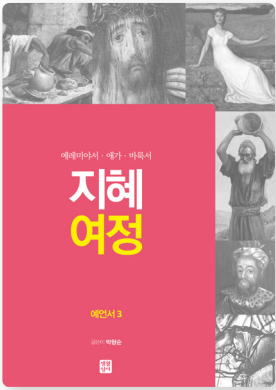
『2025년 사순판공문제집』

희망의 순례자

| 방법 | '천주교 수원교구 사목연구소 (https://pastor.casuwon.or.kr)' 홈페이지

[사목자료] > [전례 교리 자료] 게시판 > 2025년 사순판공문제집 파일 다운로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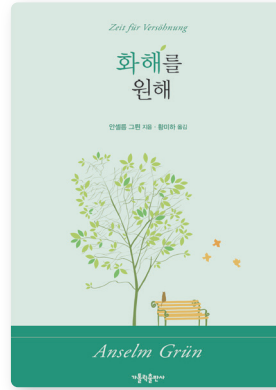
| 문의 | 031-360-7631 교구 복음화국 사순판공문제집 담당



지혜 여정 예언서3

『지혜 여정 예언서3(예레미야서·애가·바룩서)』은 예언서 중 분량이 가장 많은 ‘예레미야서’를 중심으로 다른 두 책을 연이어 함께 공부하도록 안내합니다. 이 책은 우리에게 닥친 크고 작은 고난 속에서 하느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분의 사랑을 체험함으로써 새로운 희망을 향해 나아가도록 이끍니다.

저 자 | 박형순
금 액 | 1만5천 원
문 의 | 02) 945-5985 생활성서



화해를 위해

이 책에는 저자가 기도와 묵상을 통해 얻은 화해에 대한 통찰과 다양한 사례들이 담겨 있습니다. 사례에 등장하는 이들에게 깊이 공감하며 그 입장에서 화해의 길로 나아갈 방법 또한 제시합니다. 화해가 개인의 내면에서 시작되어 우리 사회 전체로 확산될 수 있도록 합니다.

저 자 | 안셀름 그륀
금 액 | 1만8천 원
문 의 | 02) 6365-1888 가톨릭출판사

"용기를 내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요한 16, 33

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 주제가공모

공모내용

- 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의 의미와 주제를 담은 창작곡 (작사+작곡)
- 모든 장르 지원 가능 (참가자별 3곡까지 지원 가능)

공모주제

- "용기를 내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요한 16, 33)

문의 및 접수

- 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 공식 홈페이지
- **cpbc**플러스
- 카카오톡 오픈채팅

접수일정

- 2025년 7월 1일 ~ 2025년 8월 31일

주최 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 지역조직위원회

주관 **cpbc** 가톨릭평화방송 서울대교구 성음악위원회